**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The Heidelberg Catechism)**

**<제 2부>**

**여섯 번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6)**

**18문)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요, 의로우신 그 중보자는 누구신가요?**

**답)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그 분께서는 하나님께로 부터 오셔 우리를 위해 지혜가 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1:30)**

**참조귀절들:**

**(1) 마태복음1:21-23; 누가복음2:11; 디모데전서2:5; 3:16.**

**Question 18. But Who is that Mediator Who at the same time true God and a true and righteous man?**

**Answer: Our Lord Jesus Christ, (1)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1 Corinthians 1:30)**

**(1) Matthew 1:21-23; Luke 2:11; 1 Timothy 2:5; 3:16.**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되고 의로우신 중보자시다.아버지께서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 “지혜”로 주신 것이다.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모실 때, 비로서 우리가 다시 지혜로와 지는 것이다.**

**(Jesus Christ, our Mediator is true God, and a true and righteous man. The Father gave Him to foolish sinners like us that He may become our wisdom. When we-sinners receive God-given wisdom, we become wise again)**

**19문)어디로 부터 당신은 이 것을 아나요?**

**답) 거룩한 복음으로 부터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자신께서 낙원에서 처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1) 그 후에, 하나님께서 족장들과(2) 선지자들을(3)통해 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들과 여러 제례법들을 통해,복음을 그림자의 모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4)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를 통해 그 모든 복음(의 실체를)을 성취하셨습니다.(5)**

**참조귀절들:**

**(1) 창세기3:15.**

**(2) 창세기12:3; 22:18; 49:10.**

**(3) 이사야53:1-12; 예레미야23:5; 히브리서1:1; 누가복음24:25-27.**

**(4) 레위기1-7; 요한복음5:46; 히브리서10:1-10.**

**(5) 로마서10:4; 갈라디아서4:4-5; 골로새서2:17.**

**Question 19. From where do you know this?**

**Answer: From the Holy Gospel which God Himself first revealed in the Paradise.(1)Later, He had it proclaimed by the patriarchs(2)and prophets,(3)and foreshadowed by the sacrifices and other ceremonies of the Law.(4)Finally, He had it fulfilled through His Only Son.(5)**

**Bible References:**

**(1) Genesis 3:15.**

**(2) Genesis 12:3; 22:18; 49:10.**

**(3) Isaiah 53:1-12; Jeremiah 23:5; Hebrew 1:1; Luke 24:25-27.**

**(4) Leviticus 1-7; John 5:46; Hebrews 10:1-10.**

**(5) Romans 10:4; Galatians 4:4-5; Colossians 2:17.**

**1. 문답18번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스스로 지어 낸 이론이 아니다.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에서 드러 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들인 것 뿐이다.**

**2.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 난 진리를 요약하여 믿는 것 뿐이다. 처음에는 말씀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중에 이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문자로 남겨 주셨다. 따라서 이 기록된 문자 전체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특별계시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이 기록된 문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저기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문서 전체의 글자 토씨 하나 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특별계시요, 말씀이요, 진리이다.**

**3. 좋은, 혹은 복된 소식이라는 이 거룩한 복음을 처음에,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죄인들에게 직접 선포하셨다. (창세기3:15) 그 후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같은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계시하여) 주셨다. 점진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이 복음의 완성된 실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독자 나사렛 예수이시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모든 법과 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들과 같았다. 그들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분이 오신 후로는 그림자들의 역할을 본체와 같이 취급할 수가 없고, 이들을 폐기하거나,부수적인 방향표식의 역할로만 받아 들인다.**

**(1.Thus far to Q & A 18, we have not invented them as our own theory. What we did was to believe in and accept what God has revealed to us as His holy Gospel, that is, Good News.**

**2. In other words, we just believe what was summarized from God’s Word as the Truth, the special revelation of God. At first God merely spoke and then appeared in various forms and sounds, later let His chosen persons put them into writings. Therefore, all and every one of the letters and words is the special revelation of God, the Good News, and the Word of God for sinners.**

**In the written Scripture, we find every and all part of it is the Word of God. The God’s Word is not scattered here and there in the Scripture. The whole Scripture is God’s special revelation, God’s Word, and the Truth.**

**3. The Good or Blessed News is the holy Gospel. God personally proclaimed it first in Paradise to sinners who betrayed Him. Genesis 3:15. Later by the patriarchs and the prophets God revealed it progressively and more in detail. The end of such a progressive revelation is the person Jesus of Nazareth, the fulfilled substance of the gospel. Jesus of Nazareth is the real substance of the Gospel itself and the only Son of God.**

**Therefore, all those ceremonies and those laws about sacrifices were in fact mere shadows to their real substance, Jesus Christ. After the incarnation of Jesus, all these shadowy things had accomplished their role as the pointers to the Christ in human form. Thus, no longer God requires the New Testament Christians to observe these shadowy things strictly. So, they just remain more or less as the mere pointers to Jesus Christ as their real substance**